

에너지 패러다임 혁신... 안전산업개발

한전산업개발은 1992년 화력발전소 연료운전을 시작으로 화력, 원자력 등 발전플랜트 O&M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특히 1998년 국내 최초로 화력발전소 배연탈황설비 운전과 화력발전 부산물인 석탄회 정제공장 운영을 통해 화석연료의 사용으로부터 대기 환경을 보호하고 폐자원을 산업 자원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지속가능 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원전 수처리(물)·회처리(대기)·탈황설비(대기) 운영을 통해 깨끗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한전산업은 전국 15개 화력발전소에서 총 62기의 연료환경설비 O&M(운영·관리)사업을 수행, 국내 화력발전 연료환경설비 운전 시장의 75% 이상을 담당한다. 화력발전소 연료환경설비 경상정비와 더불어 2015년에는 화력발전설비의 핵심인 터빈 및 보일러 등 주 설비 정비사업에 진출, 현재 GS북평화력과 당진화력, 태안화력 주설비 정비역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전력통계를 살펴보면 2022년 기준 국내 총 발전량에서 석탄(32.5%)과 LNG(27.5%)를 더한 화력발전용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달한다. 물과 공기처럼 우리 생존의 필수요소라 할 수 있는 전기 수요의 절반 가까이가 한전산업의 손을 거쳐 생산되고 있다.

함흥규 대표는 탄소중립의 일환으로 한산의 주요 사업장인 석탄화력발전소들이 점차 줄어들 예정이다. 올해 초 발표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오는 2036년까지 28기의 석탄화력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함 대표는 “한산이 보유한 회처리 및 수처리 기술들을 활용해 앞으로 변화할 전력시장에서 수소·암모니아 혼소, 원전 등 다양한 분야로 광범위하게 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 대표는 “현 정부에서 원전 가동이 늘어날 예정인 만큼 이 분야에 주력해 영역을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이며 전 세계적 트렌드인 탄소중립으로 인해 한산의 어려움이 커지는 환경에서 한산의 역량을 바탕으로 한 사업영역 확대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최근 한전산업은 수소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했 산업용, 상업용으로 공급하는 액화탄산 생산설비의 운영에 첫 발을 내디뎠다.

환경과 사람을 생각하는 발전설비 O&M O&M 미래에너지 사업을 이끈다

한전산업개발은 1992년 화력발전소 연료운전을 시작으로 화력·원자력 등 발전플랜트 O&M(운영&정비)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갔다.

특히, 1998년 국내 최초로 화력발전소 배연탈황설비 운전 및 석탄회 정제 공장 운영을 통해 화석연료의 사용으로부터 대기환경을 보호하고 폐자원을 산업 자원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지속가능 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원전 수처리(물)·회처리(대기)·탈황설비(대기) 운영을 통해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한전산업은 발전 High-Tech 사업을 적극 추진했 미래에너지 사업을 이끌어 나간다.

연료환경설비 운전



1992년 보령화력 연료설비 운전을 시작으로 한전산업개발은 회처리 및 배연탈황설비로 사업영역을 넓혀나가며 국내 화력 발전 연료환경설비 운전의 77%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발전 수처리 등 화학설비 운전

한전산업개발은 연료환경설비 O&M 뿐만 아니라 발전설비 계통수처리를 위한 화학설비(복수탈염설비 등)도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원자력발전 O&M

한전산업개발은 국내·외 원자력발전소를 대상으로 원자력발전 과정에서 수자원 공급 및 수자원의 사용 후 처리, 그리고 안정적 설비운영을 위한 정비 역무 등을 수행함으로써 대한민국 에너지 경쟁력을 세계에 알리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화력발전 O&M



한전산업개발은 화력발전 설비 운전과 정비를 수행하며 전력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1992년 석탄취급설비 운전업무를 시작한 이래, 회처리설비, 국내 최초 배연탈황설비 운영에 이르기까지 국내 화력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분야의 77%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보일러 터빈, 탈황, 석탄 취급설비 정비 등 화력발전소 전반의 정비 역무를 수행하는 등 국가 기간 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발전 터빈·보일러 정비



2016년 당진 7, 8호기 터빈·보일러 경상정비공사를 시작으로 태안 9, 10호기, GS동해전력과 현대그린파워 등에서 터빈·보일러 경상정비공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복합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매년 10회 이상 G/T(가스 터빈)와 S/T(스팀터빈) OH 공사를 수행하며 고객에게 높은 정비품질과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료·환경설비 정비

한전산업개발은 1995년 석탄취급설비 정비를 시작으로 연료·환경분야 경상정비 및 계획예방정비를 수행하고 있다.

석탄취급설비 정비, 탈황설비 정비 등 화력발전소 전반의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등 최고 수준의 정비품질을 제공하고 있다.

정제공장 운영 및 석탄회 판매

1990년 한전으로부터 재활용 업무를 수탁받은 한전산업개발은 1998년 태안화력 정제공장을 준공, 운영해 오고 있다.

한전산업개발은 연소 후 폐기되는 석탄회의 재활용을 통해 자원의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보다 깨끗한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전산업개발주 합흥규 대표이사 취임 이후 약 9개월에 걸쳐 이뤄낸 대표적인 성과로 조직문화 개선을 꼽았다.

함 대표는 취임 당시 한전산업은 공기업 문화 때문인지 상당히 침체되고 사기가 떨어진 상태였다고 회상했다.

이런 조직 분위기를 탈피하기 위해 함 대표가 처음 한 것이 저녁 회식과 봉사활동이다.

함 대표는 임직원부터 직원들까지 같이 식사하며 부

“

한산인으로 ‘으샤으샤’... 형님 리더십으로 ‘똥똥’

등켜안고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동기를 불어 넣었고, 봉사활동에 함께 참여해 좋은 에너지를 나눴다.

형님 리더십으로 조직문화에 새 바람을 불어 넣은 함 대표는 “우리 한산인은 이제 함께 나아가겠다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조직으로 변해가고 있다”며 “같이 호흡하고 동고동락하며 한전산업의 새로운 도약에 함께 힘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함 대표는 “안전은 가족이다”란

신념으로 안전관리 강화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함 대표는 “안전관리가 소홀해 사고가 나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을 받는다. 이런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 직원 하나 하나는 우리의 식구이자 한 가정의 가장이다. 이 직원이 다쳐서 손실된다는 건 우리 회사로 보나 가정으로 보나 국가로 보나 엄청난 손실”이라고 말했다.

한전산업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사장 직속의 안전보건처를 운영 중이며 주기적으로 순회 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안전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산업재해율이 있는데 건설 쪽이 가장 많고 발전 쪽도 평균 0.5가 발생한다.

0.5는 7000명 정도 발전 관련해서 재해 사고가 발생하는데 한전산업은 0.07%라서 경미한 수준으로 노동부 등으로부터 안전관리 우수 기업으로 포상받은 바 있다.

특별한 경영 철학이 없다는 함 대표는 장애인에게만 큰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

함 대표는 “장애인 1명을 도와주는 건 장애인 한 명이 아니라 그 부모 가족, 친지 등 10명을 도와주는 거다. 우리가 조금 장애인 관리하고 힘들지만 많이 도와줘야 이 밝은 사회가 된다” 임직원들에게도 강조하는 이

야기다.

한전산업은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이 103명인데 현재 99명을 고용하고 있어, 타 기업에 비해 상당히 높은 장애인 고용률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함 대표는 지난해 사내 봉사단 2050 프렌즈 1기를 발족하고, 남대문 쪽방촌 식사봉사를 펼쳤다. 올해도 2050 프렌즈 2기를 발족해 무료급식소 봉사, 명절맞이 만두 빚기, 연탄나눔 봉사 등에 함께 하며 나눔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함 대표는 태양광을 이용한 새로운 먹거리 확보에도

애쓰고 있다.

함 대표 “지금 발전업계는 이 탈석탄 분위기”라며,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석탄 발전이 줄어든 데 따라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에 주력해 여수, 구미 등에 태양광 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폐목을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함 대표는 끝으로 “한전산업 직원들이 으샤으샤 하나로 똥똥 뭉쳐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며 “한전산업이 정말 가고 싶은 기업, 팬들은 기업이란 이야기를 듣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진희기자